LOCAL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 나주, 국제무대서 '에너지 수도' 비전 선포

## 핵융합 전문가 학술대회 참석…전남도와 공동 홍보전 펼쳐
## 윤병태 시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국정과제 반영 노력"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IFPC)에 2년 연속 참가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와 핵융합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운영한 이번 IFPC 홍보관은 국내 참가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시는 홍보관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교통과 주거,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우수한 정주 여건,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과 에너지 집적도 등 나주만의 강점을 전방위로 알렸다.

또 행사 현장에서 국내외 핵융합 유관기관, 연구자, 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주 이전 의향 수요조사를 병행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수요 맞춤형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보관을 찾은 많은 핵융합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과 나주시의 지속적인 유치 활동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나주시가 2년 연속 IFPC에 참여하며 보여준 일관된 정책 의지와 에너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태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나주시가 핵융합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나주시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선제적으로 유치해 한국에너지공대 주도로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 확대하면서 핵융합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대 등 에너지 R&D 산업이 밀집된 입지를 바탕으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중심으로 한 국가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7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대에서 개최되는 'KAPRA & KPS/DPP 콘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핵융합 석학들이 다시 한 번 모이면서 나주의 국제적 위상과 협력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윤병태 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수도 실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함평,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 관람·체험·숙박 등 할인 혜택

함평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함평군 내 22개 관광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관람시설 1곳, 체험시설 6곳, 숙박업체 8곳, 식음료업체 7곳 등 총 2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함평의 대표 관광지인 '함평자연생태공원'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VR체험장'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포털 또는 모바일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접속해 '함평군'을 선택하고 관광주민증을 발급한 뒤 원하는 업체의 쿠폰을 내려받아 참여업체에 제시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할인 혜택 및 참여 방법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 장흥,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장흥군은 최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 부과·징수·독촉을 비롯한 체납관리 절차 전반에 사용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교육이다.

단순 전산시스템 교육이 아닌 세입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 납부자에게 부과 시 유의할 점, 과태료 담당자들이 유의할 점 등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세금에 비해 납부 저항이 크다.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핵심 자주재원으로, 체계적인 부과·징수관리가 중요하다.

군은 세외수입이 매년 관련 법령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세외수입 업무를 위해 하반기에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우리가 미래의 AI 전문가"** 해남군이 최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갖고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에 나섰다. 테블릿, 딥코봇 등 AI 학습기기와 전문 강사를 활용해 아동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최종적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등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

## 해남, 주거환경 개선 '빈집 재생프로젝트' 확대
### 전입 2년 이내 군민도 신청 가능…"실질적인 정착 지원"

해남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남형 '빈집 재생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 '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남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해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 개소당 최대 3000만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맞춘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 여수, 열번째 웹드라마 '그림자' 예고편 공개
### 오늘 '힐링여수야' 유튜브서
### 26일 여수문화홀 시사회

여수시는 19일 '힐링여수야' 유튜브 채널에서 열 번째 관광 웹드라마 '그림자'의 예고편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둠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이번 작품은 MZ세대의 도전과 실패, 성장을 다룬 휴먼 판타지 드라마로 근현대사의 비극인 '이야포 미군폭격사건'과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 사건'을 교차하는 독특한 연출이 주목된다.

촬영지는 오동도, 여자만 상봉데크길, 웅천 친수공원, 율촌 애양병원, 안도 이야포 추모공원 등으로 알려졌으며, 단순한 관광 홍보용 콘텐츠를 넘어 사회적 통찰을 함께 담아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오는 26일 여수문화홀에서 시사회를 열고, '힐링여수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편(5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강진, 대형 유통업체와 쌀귀리 작황 점검
### 이마트·쿠팡 관계자, 수확 현장 방문

강진군은 최근 이마트, 쿠팡 등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할인점, 쇼핑몰 담당자들이 쌀귀리와 쌀보리 수확 현장을 방문해 작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8년 동안 강진군 식량 작물 농업인들과 상호 신뢰 속에 계약재배를 진행 중인 ㈜두보식품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대형 업체의 방문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지역의 쌀귀리·쌀보리의 역사, 재배 현황 및 특장점 등이 담긴 스토리텔링 방식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배석한 재배농가 대표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후 강진읍 학명리 쌀귀리 단지와 마량면 원포리 일대의 쌀보리 단지 일대에서 현장 확인이 이뤄졌고,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파종~월동기 기상이변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진 쌀귀리와 쌀보리 원료곡을 확인하며 연이어 호평을 보냈다.

강진원 군수는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